한국수력원자력(주) 천지원전건설준비실

電력질주 성공적인 원전건설 프로젝트를 위한 첨병역할 수행

영덕군 천지원전 건설이 확정됐다. 지난달 22일 정부의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에 따라 2029년까지 신규원전 2기가 건설될 예정이다. 한수원은 이에 따라 영덕군 현지에 주민들과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한 '천지원전건설준비실'을 열었다.

천지라는 명칭은 원전이 들어서게 될 영덕읍 석리 · 노물리 · 매정리에 걸쳐 있는 '천지산'에서 따온 것이다.

신규원전 건설 앞두고 지역주민과 밀착 소통 · 신뢰 구축

한수원은 지난달 24일 천지원전 건설 예정지인 경북 영덕군에 주민 소통을 위한 사무소를 열었다.

영덕읍 우곡리에 위치한 한수원 천지원전건설준비실은 원전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관과 주민설명회가 가능한 강당, 소통 공간 등을 갖추고 있으며, 본격적인 원전건설에 앞서 현장 밀착형 사업 추진을 위해 한수원 직원들이 상주, 근무할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것이다.

| 건설준비실 1층 홍보관을 둘러 보고 있는 마을 주민 |

신규원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과의 상생협력관계 구축이 최우선이다. 이에따라 한수원은 지역주민과 밀착 소통을 위해 건설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사무소를 조기에 오픈하였다.

조명현 천지원전건설준비실장은 “영덕군 주민이면 누구나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사랑방처럼 편안한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 중이며, 한수원과 영덕군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영덕군과 주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소통활동을 통해 주민수용성을 높여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직원 모두가 진정성을 갖고 주민들에게 다가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 조명현 천지원전건설준비실장 |

|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다짐하는 천지원전건설준비실 직원들 |

천지원전건설준비실은 ▲건설준비팀(3명) ▲부지팀(4명) ▲지역협력팀(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설준비팀은 인허가 관련 현장업무와 지자체 대관업무를 주 업무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홍보(간담회, 설명회, 원전시설 견학 등)와 건설관련 민원업무, 지역상생협력업무도 함께 담당하고 있다.

부지팀은 용지 매수, 분묘 이장 및 보상관련 업무와 주민 이주대책 관련 업무를 주 업무로 추진하고 있으며, 부지조사와 환경영향평가, 지역협력시설 등 사전공사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지역협력팀은 예산/정원, 총무/회계 업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직원 복리후생 및 지역주민 의료봉사 업무에도 주력하고 있다.

천지원자력발전소는 지난 2008년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신규원전부지 2~3개소 확보) 시 부터 추진됐다. 이후 영덕을 포함한 삼척과 울진 등에서 신규원전 후보부지로 유치신청을 했으며, 지난 2011년 영덕과 삼척을 신규원전 후보부지로 선정, 발표했다. 현재는 지난 6월 기준 매수청구분 보상을 진행 중(접수분 72필지/전체 1,678필지)에 있다.

천지원자력발전소가 들어서게 될 장소는 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 노물리, 축산면 경정리 일원이며, 약 324만㎡(약 98만평)의 면적규모이다. 형식은 가압경수로(PWR)이며 용량은 1,500MW 4기 이상이다.

한수원은 기 확정된 신고리 #7,8 물량을 활용하여 천지(영덕) 1,2호기 건설(2026 ~ 2027년) 의향을 제출했다. 신규원전 2기에 대해서는 대진(삼척) 1,2호기 또는 천지(영덕) 3,4호기로 건설의향서를 제출했으며, 예정된 신규원전의 최종입지는 2018년 발전사업허가단계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건설 예정부지 전경 |

신규원전 건설지역은 부지안전성, 환경성, 건설 적합성 및 주민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된다. 원자력은 안정적인 전력공급 및 에너지 안보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해외의존도를 낮추며 온실가스 감축과 국가경제 활성화 효과가 크다. 또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은 지원금과 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고용 우대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누리게 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기대
현명한 주민여론 형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 경주

울진군의 경우 신한울원전 1,2호기 건설에 따른 건설 중 지원금 2,400여억 원과 60년 동안의 발전소 운영기간 중 지원금 1조6200여억 원이 지원된다. 또한, 건설기간 중 신한울건설소 및 시공사의 약 3,000여 명 인원 중 670명 정도의 지역주민을 채용함으로써 약 22%의 고용효과 창출과 지역 업체의 22.3%가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한수원은 안전성에 기반한 국민과 주민들의 원전 수용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아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수원은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전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여 나가는데 주력하는 한편,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올바른 상징의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